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16년 7월 조사

안정된 국내경기의 악화경향, 누그러진 마이너스쇼크

~ 1년 5개월 만에 전 지역이 개선 ~

(조사대상 2만 3,639사, 유효회답 1만 285사, 회답률 43.5%,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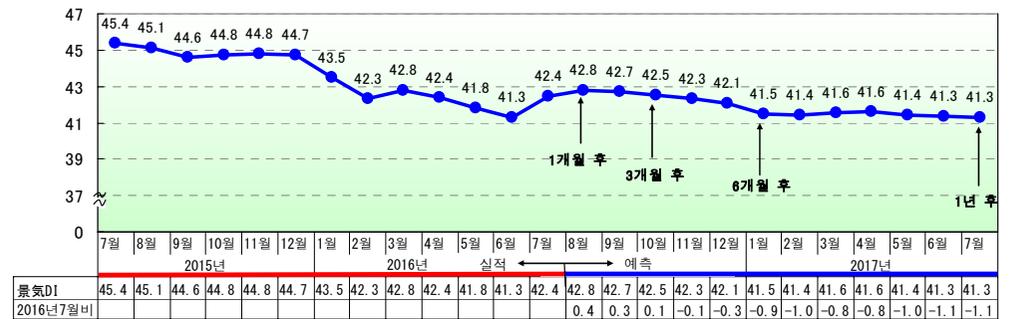
- 7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42.4가 되어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쿠마모토지진이나 연비부정문제, 영국의EU이탈문제 등 마이너스쇼크의 영향이 전월에 비해 누그러져 악화경향이 주춤하였다. 향후 경기는 확장적인 경제정책이 플러스재료가 되는 한편, 해외경제에 불안요소도 많아 일진일퇴를 계속하며 제자리걸음 상태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임·수산』 『부동산』 을 제외한 8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쿠마모토지진이나 연비부정문제, 브렉시트쇼크의 영향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경제대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건설』 『제조』 『소매』 『운수·창고』 『서비스』 등 6개 업종에서 개선폭이 1포인트 이상 크게 회복 되었다.
- 전 10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큐슈』 는 쿠마모토지진으로 인한 복구·부흥에 동반하는 토목사업관련이 체감경기를 끌어올렸다. 또한 『토카이』 에서는 공장폭발로 정지상태였던 자동차생산이 재개되어 제조업이 개선되는 요인이 되었다.

< 2016년 7월의 동향 : 안정된 악화경향 >

2016년 7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42.4가 되어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7월은 쿠마모토지진이나 대형자동차제조사의 연비데이터부정문제, 영국의 EU이탈쇼크의 영향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어 체감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졌다. 공공공사가 증가한 점 이외에 가솔린이나 경유가격의 저하로 코스트부담이 일부 감소된 점이 체감경기를 개선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마이너스경기정책은 주택관련업종에서 호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편, 금융기관에서 설비투자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가중되는 등 도입의 효과는 업종 간에 차이가 보여진다. 소비관련에서는 『소매』 가 3개월 만에 개선되었지만 소비자의 절약지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바운드 소비에 있어서 고가상품이 저가상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보인다. 한편, 쿠마모토지진으로 하락된 체감경기가 바닥수준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던 『큐슈』 는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국내 경기는 전월까지의 마이너스쇼크의 영향이 서서히 누그러져 악화경향이 안정되었다.

< 향후전망 : 일진일퇴를 계속하며 제자리걸음 상태로 추이 >

7월 말에 결정된 일본은행에 의한 추가금융완화책과 함께 재정의 조기지출이나 사업규모 28조엔의 경제대책 등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양론에 의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개인소비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한 현금지급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면에서 향상을 도모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부담의 증가로 설비투자 등에 소극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으며, 소비회복에는 실적개선에 동반하는 부담상승이 불가결하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고용상황이 호조였던 한편, 중국 등 신흥국이나 자원국경제의 경기감속은 불안요소이다. 향후의 경기는 확장적인 경제정책이 플러스재료가 되는 반면, 해외경제에 불안요소도 많아 일진일퇴가 계속되면서 제자리걸음 상태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별 : 8개 업계가 개선, 그 중 6개 업계에서 1포인트 이상 회복

• 『농·임·수산』 『부동산』 을 제외한 8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쿠마모토지진이나 연비부정문제, 브렉시트의 영향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를 거둔 영향으로 경제대책을 향한 기대가 높아져 『건설』 『제조』 『소매』 『운수·창고』 『서비스』 등 6개 업계에서 개선폭이 1포인트 이상 크게 회복되었다.

• 『건설』 (46.5) ...전월 대비 1.8포인트 증가.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감소가 지속되었던 공공공사가 올해 들어 회복 중인 점도 영향을 미쳐 2013년 11월 이래 2년 8개월 만의 개선폭을 보였다. 쿠마모토지진의 복구공사가 민간에서 잇따르고 있으며 향후에는 공공공사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나 방일 여행객의 증가로 호텔수요가 고공행진인 가운데 도쿄올림픽을 위한 호텔 개발이 대도시에서 잇따르고 있는 점, 그리고 마이너스금리를 바탕으로 단카이 세대(1947년~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상속세 대책으로서 아파트를 세우는 경향이 활발화되고 있는 점에 따른 주택착공호수의 증가가 호재료가 되었다.

• 『소매』 (39.3) ...동 1.6포인트 증가.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9개 업종 중에서는 「가구류 소매」가 유일하게 악화되었지만 8개 업종은 개선되었다. 의약품소매 등이 호조인 「의약품·일용잡화소매」가 동 4.6포인트 증가하였다. 소비세 및 경자동차세 증세 전 막바지 수요로 증가한 신차가 중고차시장에 공급되는 것에 따른 가격하락 이외에 금리저하가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한 「자동차·동부품소매」가 동 2.8포인트 증가하여 개선되었다. 또한 엔고현상의 영향을 받아 이익율이 개선된 통신판매 등 「각종상품소매」는 동 0.6포인트 증가하였다.

• 『운수·창고』 (41.5) ...동 1.5포인트 증가. 8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트럭운전수의 인력부족은 여전히 심각하지만 경유판매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인 점이 호재료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진이나 연비부정문제, 공장폭발사고 등으로 정체되어 있던 자동차생산의 증가로 자동차관련의 화물이동이 양호하여 화물자동차운송이나 항만운송에서 개선되었다. 또한 인터넷통신판매의 성황으로 창고업이 호조인 점과 함께 플라마켓 어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한 개인 간 거래의 배송수요가 증가세인 점도 운수업의 체감경기 개선에 기여했다.

• 『제조』 (41.2) ...동 1.1포인트 증가.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마이너스금리나 맨션 가격의 상승으로 단독 주택의 신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호조인 제재업이나 목재관련, 가구 등 「건재·가구, 요업·토석제품제조」가 동 2.7포인트 증가하였다. 견조한 추세의 골판지 상자와 함께 쿠마모토지진의 영향으로 인한 비축용이나 방일 여행객 수요로 인해 호텔에서 주문이 증가한 위생지, 그리고 선거용 포스터나 판촉물용 제품이 호조인 「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가 동 1.9포인트 증가하여 개선되었다. 지진 등에 따른 하락세로부터의 생산회복으로 자동차용 부품 등이 호조인 「운송용기계·기구제조」도 동 1.3포인트 증가하는 등 12개 업종 중 9개 업종이 개선되었다.

	1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비	
농·임·수산	42.9	44.7	44.7	44.6	45.2	46.4	43.6	44.5	42.3	42.4	42.1	43.7	42.5	▲ 1.2	
금융	48.1	46.5	46.3	47.3	46.6	46.3	45.3	44.3	44.8	45.5	44.3	45.0	45.1	0.1	
건설	48.6	48.8	49.1	49.5	49.6	49.3	47.9	45.9	46.3	45.2	44.9	44.7	46.5	1.8	
부동산	49.8	48.4	48.7	48.7	48.9	48.4	47.1	48.0	48.2	48.1	48.3	48.4	47.8	▲ 0.6	
제조	식품료품·식품제조	43.4	43.0	43.6	44.3	44.5	44.1	44.2	43.2	44.2	44.6	43.4	43.0	43.0	0.0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9.4	40.2	38.8	39.8	39.4	39.3	36.4	37.6	39.8	38.2	38.4	38.2	37.0	▲ 1.2
	건재·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	41.2	41.2	40.9	40.2	38.9	40.7	38.5	38.0	38.6	37.9	38.3	37.8	40.5	2.7
	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	39.7	42.0	40.8	41.1	42.4	41.7	40.3	36.8	37.6	40.2	38.6	38.5	40.4	1.9
	철강·연쇄	33.7	34.9	34.8	34.8	34.6	34.7	34.0	34.6	35.3	34.1	34.0	32.9	33.5	0.6
	화학제품	44.7	45.3	44.4	44.4	44.9	45.4	44.3	42.8	42.7	43.0	42.7	42.2	43.3	1.1
	철강·비철금속·광업	43.6	42.8	41.7	41.4	41.8	41.5	41.1	38.8	38.3	38.3	38.1	37.6	38.7	1.1
	기계제조	51.9	50.3	47.3	47.9	47.3	48.6	46.0	45.5	45.7	45.3	44.0	43.6	44.9	1.3
	전기기계제조	47.4	44.8	45.2	45.2	45.2	44.9	43.0	42.8	42.8	42.3	40.4	40.4	41.9	1.5
	운송용기계·기구제조	50.9	50.8	48.3	46.3	47.0	46.2	45.7	44.6	46.8	46.8	43.8	42.7	44.0	1.3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50.4	51.2	47.9	48.6	47.9	46.1	46.2	43.1	44.6	44.6	43.2	43.2	42.6	▲ 0.6
	기타 제조	39.2	37.7	40.0	39.8	40.0	39.6	39.4	39.1	40.6	37.5	37.8	37.0	39.1	2.1
	전체	44.6	44.2	43.2	43.3	43.3	43.5	42.2	41.2	41.6	41.3	40.6	40.1	41.2	1.1
도매	식품료품도매	44.1	42.7	43.6	43.0	43.1	42.6	41.9	40.9	42.2	42.6	41.0	40.1	41.1	1.0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4.4	34.7	36.5	37.8	34.4	34.4	33.5	32.7	33.8	35.7	34.6	35.3	33.5	▲ 1.8
	건재·가구,요업·토석제품도매	39.8	39.7	39.5	41.3	41.5	41.8	40.5	39.1	39.4	39.2	38.4	37.6	39.0	1.4
	종이류·문구·서적도매	37.1	36.5	36.8	36.8	37.4	37.2	38.1	37.4	38.0	36.6	36.7	34.2	35.9	1.7
	화학도매	43.9	42.6	42.3	42.5	42.8	43.2	40.8	39.2	40.2	39.5	39.4	38.8	39.5	0.7
	재생자판도매	35.8	36.0	25.8	29.9	26.7	32.1	25.6	28.4	30.7	39.3	33.3	28.3	29.4	1.1
	철강·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40.4	40.3	38.5	38.8	39.4	37.7	36.4	35.8	36.1	35.2	34.6	33.2	35.7	2.5
	기계·기구도매	45.6	45.3	43.6	43.6	43.4	43.6	42.6	41.2	41.7	40.9	41.1	39.7	40.9	1.2
	기타 도매	42.4	41.4	40.8	41.0	41.1	41.1	39.9	39.0	39.6	39.1	38.6	38.2	38.0	▲ 0.2
	전체	42.5	41.9	41.2	41.5	41.4	41.4	40.1	39.0	39.7	39.4	38.9	37.9	38.8	0.9
소매	식품료품소매	45.0	44.0	44.5	44.6	41.4	43.2	39.9	40.4	43.4	42.1	38.9	38.6	40.7	2.1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8.6	38.7	36.9	40.1	36.8	32.1	34.8	31.6	33.3	35.1	32.9	32.5	33.8	1.3
	의약품·일용잡화소매	49.3	48.7	46.7	48.6	50.0	49.4	45.3	45.4	46.1	42.0	41.1	37.9	42.5	4.6
	가구류소매	41.7	41.7	42.9	42.9	42.9	47.2	42.9	40.5	40.5	38.1	42.9	41.7	36.1	▲ 5.6
	가전·정보기구소매	38.9	38.3	44.6	39.6	38.7	40.7	43.8	39.2	40.4	40.7	35.8	36.6	40.2	3.6
	자동차·동부품소매	38.3	38.7	38.6	39.9	38.2	37.9	40.0	37.9	38.6	40.4	37.2	37.0	39.8	2.8
	전문상품소매	39.9	41.6	40.7	39.2	39.8	38.4	40.4	39.2	37.4	38.9	37.0	37.4	37.6	0.2
	각종상품소매	48.8	49.0	47.3	46.5	47.3	43.8	45.4	43.7	44.8	43.3	43.7	42.4	43.2	0.6
기타 소매	35.7	44.4	44.4	36.1	38.9	43.3	44.4	41.7	44.4	41.7	42.9	41.7	46.7	5.0	
전체	41.9	42.4	42.2	41.6	40.9	40.2	41.0	39.5	40.1	40.2	38.0	37.7	39.3	1.6	
운수·창고	44.4	44.9	45.1	44.7	45.4	45.3	43.2	41.9	41.9	41.5	41.5	40.0	41.5	1.5	
서비스	음식점	47.4	51.3	45.3	49.2	46.2	44.4	47.1	42.1	43.6	43.1	42.3	40.2	45.3	5.1
	전기통신	47.0	53.0	59.3	57.6	53.0	51.5	58.3	54.2	50.0	59.1	52.4	46.2	52.6	6.4
	전기·가스·수도·열공급	50.0	51.9	56.7	55.0	55.0	55.0	52.4	53.7	50.0	51.9	47.6	44.4	42.9	▲ 1.5
	리스·임대	48.7	49.9	48.0	48.0	49.2	49.7	48.1	46.2	47.1	45.9	46.7	45.5	45.9	0.4
	호텔·호텔	59.2	59.0	58.3	61.4	59.1	55.4	56.9	54.7	56.1	50.5	44.4	46.8	47.8	1.0
	유리서비스	37.3	38.0	37.9	38.0	38.0	38.6	39.1	37.3	36.9	38.0	36.8	38.4	37.1	▲ 1.3
	방송	49.1	46.1	41.7	45.1	46.9	47.8	43.8	46.9	45.6	46.7	44.4	42.7	43.6	0.9
	엔터테인먼트·경비·검사	47.6	47.4	46.0	46.1	47.1	46.4	44.8	43.8	43.9	44.4	44.3	44.3	46.3	2.0
	광고관련	39.8	40.7	40.8	40.7	40.3	39.2	37.2	40.9	37.5	36.8	37.9	38.9	38.9	1.0
	정보서비스	56.4	55.8	55.5	56.0	54.9	54.9	55.2	53.3	53.4	53.4	52.5	52.2	53.0	0.8
	인재·박권·소개	54.4	55.0	54.2	54.7	52.5	53.1	50.9	52.7	54.7	53.1	52.5	49.4	52.4	3.0
	전문서비스	52.0	51.4	51.5	49.0	50.3	52.1	49.1	48.9	49.6	48.3	48.6	49.2	50.5	1.3
의료·복지·보건위생	45.3	43.6	42.8	42.3	44.1	42.2	39.9	39.2	42.5	41.5	41.4	41.5	41.6	0.1	
교육서비스	40.6	44.1	42.1	45.0	50.8	46.7	46.3	46.8	47.4	43.0	42.2	43.9	48.2	4.3	
기타 서비스	50.9	48.5	49.3	49.2	50.1	49.0	45.9	47.5	47.1	46.7	45.7	46.8	46.6	▲ 0.2	
전체	50.4	50.1	49.6	49.6	49.6	49.6	48.4	47.4	48.2	47.5	46.8	46.7	47.8	1.1	
기타	42.6	40.7	41.4	42.3	41.9	43.8	40.9	39.4	38.8	37.4	37.5	37.5	38.8	1.3	
격차 (10개업종별 『기타』 제외)	8.5	8.2	8.4	8.1	8.7	9.4	8.3	9.0	8.5	8.7	10.3	10.7	9.0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포함,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 「태양광발전」은 셀·모듈, 부품·재료, 제조장치의 각 제조회사, 에너지, 판매·시공 등을 포함함.

규모별 : 4개월 만에 전규모가 개선, 두드러진 「대기업」의 회복

· 「대기업」이 46.6 (전월 대비1.5포인트 증가), 「중소기업」이 41.3 (동 1.0포인트 증가), 「소규모기업」이 40.3 (동 0.7포인트 증가) 이 되어 4개월 만에 전규모에서 개선되었다.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10개 업계 중 8개 업계가 개선되었지만 『부동산』은 「대기업」에서는 개선된 한편, 「중소기업」과 「소규모기업」에서는 악화되는 등 마이너스금리정책의 혜택은 대기업이 더 누리고 있다고 보여진다.

	1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비
대기업	48.8	48.9	48.2	48.4	48.4	47.9	47.1	46.0	46.5	46.2	45.7	45.1	46.6	1.5
중소기업	44.5	44.1	43.6	43.7	43.7	43.8	42.5	41.3	41.8	41.4	40.8	40.3	41.3	1.0
(그 중 소규모 기업)	43.4	43.2	43.2	43.2	43.1	43.3	41.8	40.3	40.8	40.3	39.7	39.6	40.3	0.7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4.3	4.8	4.6	4.7	4.7	4.1	4.6	4.7	4.7	4.8	4.9	4.8	5.3	

※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 부분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 부분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낸다.

지역 별 : 1년 5개월 만에 전 지역이 개선, 쿠마모토지진으로 인한 복구·부흥이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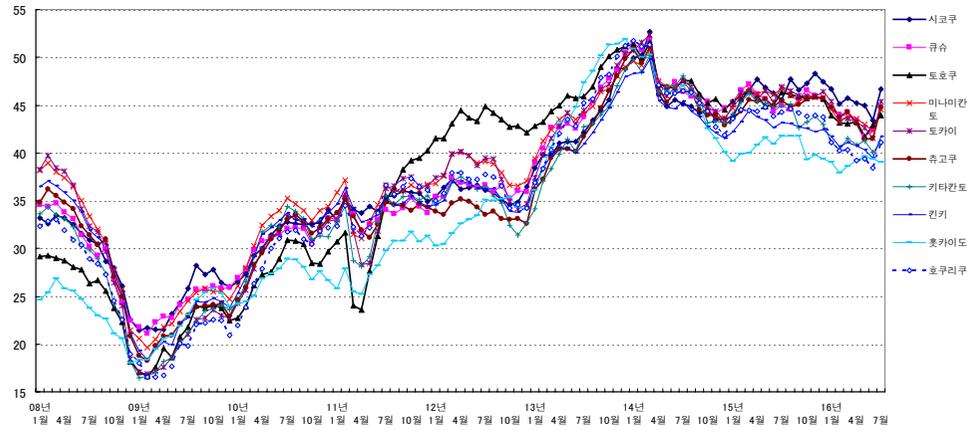
· 2015년 2월 이래 1년 5개월 만에 10개 지역 모두가 개선되었다. 『큐슈』는 쿠마모토지진의 복구·부흥에 따른 토목사업관련이 체감경기를 끌어올렸다. 또한 『토카이』에서는 공장폭발로 정지되어 있던 자동차생산이 재개되어 제조업이 개선되는 요인이 되었다.

· 『큐슈』(44.2) ...전월 대비 1.7포인트 증가.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쿠마모토지진의 복구·부흥으로 토목사업관련이 크게 발주되는 등 『건설』이 2개월 만에 개선된 이외에 건설기계 등의 연료배달이 건조한 전문상품소매를 포함한『소매』가 동 6.1포인트 증가하여 2개월 연속으로 대폭 개선되었다. 또한 정부에 주도하여 큐슈관광을 지원하는 “큐슈홋코와리(九州ふっこう割)”의 효과가 일부 들어나 「쿠마모토」는 동 8.0포인트 증가하여 지난 달에는 현 별 순위에서 제 25위를 기록했지만 7월에는 제 3위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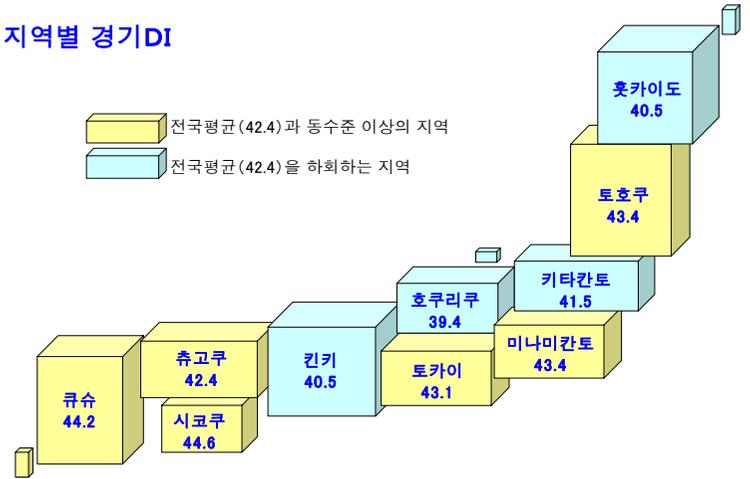
· 『토카이』(43.1) ...동 1.6포인트 증가.7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대형자동차제조사관련 공장의 폭발 사고로 정지되었던 생산이 재개되어 보통승용차나 소형승용차의 생산이 회복 중인 가운데, 지역 내의 「운송용기계·기구제조」「철강·비철·광업」이 4개월 만에 개선되는 등 『제조』는 동 1.5포인트 증가하여 개선되었다. 또한 지역 내의 방일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호영향으로 「식음료품 소매」나 「의약품·일용잡화품소매」를 포함한 『소매』는 6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 『기타칸토』(41.5) ...동 1.5포인트 증가.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연료단가의 하락으로 코스트삭감 효과가 있었던 『운수·창고』가 동 5.6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공공공사의 증가에 따른 『건설』(동 2.5포인트 증가)의 개선은 관련된 제조업 및 도매업의 「건재·가구, 요업·토석제품」으로 영향이 파급되었다. 지역 내 5개 현 모두가 개선되어 「이바라키」(동 2.7포인트 증가)와 「나가노」(동 2.1포인트 증가)가 40대로 회복하였다.

지역 별 그래프(2008년 1월부터의 월별추이)



지역별 경기DI



	15년 6월	1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비
홋카이도	40.9	41.8	41.8	41.8	39.3	39.8	39.4	39.0	37.9	38.6	39.2	39.6	39.4	39.0	▲ 0.4
토호쿠	45.0	46.3	46.1	45.9	45.8	45.9	45.6	43.9	43.2	43.1	43.3	41.7	42.9	43.9	1.0
기타칸토	44.8	45.0	45.2	42.6	43.3	43.8	43.0	41.1	40.3	41.5	40.8	41.2	40.0	41.1	1.1
미나미칸토	46.1	46.8	46.1	45.4	45.8	45.8	45.8	44.6	43.2	43.9	43.6	43.0	42.3	44.6	2.3
호쿠리쿠	43.8	44.3	44.6	44.2	43.9	43.9	43.8	41.1	40.3	40.4	39.2	39.3	38.4	41.1	2.7
토카이	45.3	46.9	46.5	46.0	46.0	45.9	46.4	45.4	43.6	43.6	43.3	42.7	41.5	45.4	3.9
킨키	42.6	43.2	43.1	42.7	42.6	42.3	42.5	41.7	40.7	41.1	40.8	40.3	39.4	41.7	2.3
추고쿠	44.8	45.5	44.9	45.0	45.6	45.8	45.8	44.8	43.7	44.3	43.1	41.5	41.5	44.8	3.3
시코쿠	46.3	45.6	47.7	46.5	47.3	48.3	47.5	46.7	45.1	45.7	45.2	45.0	43.4	46.7	3.3
큐슈	44.3	44.9	44.5	45.7	46.6	46.0	45.6	44.8	44.0	44.3	43.4	41.7	42.5	44.8	2.3
격차	5.4	5.1	5.9	4.7	8.0	8.5	8.1	7.7	7.2	7.1	6.0	5.7	5.0	7.7	

※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 부분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 부분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